Ⅰ. 주간 경제 동향

1. 경제 개관

□ 12월 중 산업활동 동향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표상으로는 경기 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내수 침체가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내용) 12월 실물 부분 경기 지표들은 뚜렷한 개선을 보이고 경기지수들도 상승세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생산) 반도체의 수출 호조 지속과 자동차, 음향기기 등의 내수 증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4.7%의 증가율을 기록. 생산의 호조를 반영하여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11월보다 1.7%p 증가한 70.5%를 기록

· (내수) 소비 및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크게 둔화됨. 도소매업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하여 11월에 이어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매의 경우 0.2%의 증가를 보임. 향후 투자 동향을 나타내는 국내기계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0.8% 증가하여 9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됨. 반면 건설 수주는 47.5%의 감소를 보여 11월(-35.6%)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됨

· (경기)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1월에 비해 0.2p 증가하여 9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선행지수 전월비는 5.7% 증가를 보여 4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주요 산업 활동 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97		98			
		12	연간	4/4	연간	11	12
생산	산업생산	3.0	6.9	-0.8	-7.1	1.4	4.7
	평균가동률	76.1	79.9	69.0	67.2	68.8	70.5
소비	도·소매판매	-4.9	3.2	-8.3	-12.5	-8.4	-2.7
	내수용소비재출하	-9.2	-1.5	-19.2	-22.1	-19.5	-12.6
투자	국내기계수주	-10.0	3.3	-11.1	-30.9	-5.1	0.8
	국내건설수주	-35.1	4.7	-45.8	-41.6	-35.6	-47.5

- (평가) 경기지수 상으로는 경기 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경기 회복세 진입 여부는 내수 위축 해소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 최근의 생산 호조는 내수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 호조에 비롯된 것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저점 통과 후 회복세로 바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소비 및 설비투자의 위축이 다소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이후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월 수출입 동향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도 자본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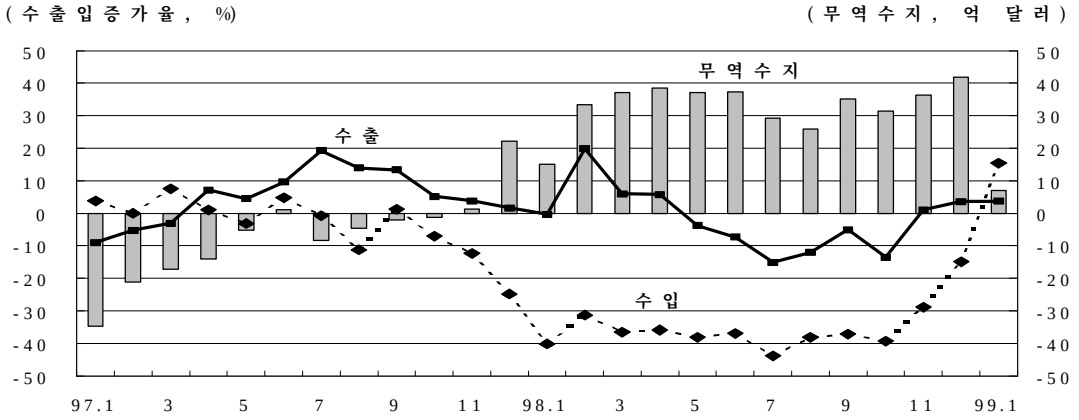
- (동향) 1월 중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15.4% 증가하여 97년 9월 1.2%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99년 1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93.3억 달러를 기록하여, 98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수입은 98년 중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15.4% 증가한 86.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96년 10월 이후 27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음
·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절대 규모가 크지 않아 무역수지는 6.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평가) 무역 확대형 무역 흑자라는 면에서 98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임

· 중남미 금융 불안, 원화 강세, 빅딜 과정의 생산 차질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점은 수출 활력이 점차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수입 증가세가 15.4%로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비교 시점인 98년 1월의 수입이 40.2% 감소한 74.9억 달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므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또한 수출용 자본재 수입 증가세가 전제 수입 증가를 주도하는 등 수입의 내용면에서도 건실한 모습을 보였음
·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98년 1월의 15.1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지만 98년의 흑자가 수출·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무역 축소형 흑자」였음에 비해 99년 1월의 흑자는 「무역 확대형 흑자」라는 특징이 있음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전망) 향후 높은 수입 증가세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신용 경색 해소 등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사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 경제 둔화 전망, 원화 강세 지속 등에 따라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반면 수입은 98년 중 지나치게 감소한 생산 설비를 보충하기 위한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연평균 15.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99년 수출입 전망>

	1997	1998(추정)	1999(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	-86.2	411	124	119	243
수출입차	-84	395	134	129	263
수출(통관기준)	1,362	1,332	655	681	1,336
(증가율, %)	(5.3)	(-2.2)	(-2.4)	(3.0)	(0.3)
수입(통관기준)	1,446	934	521	552	1,073
(증가율, %)	(-3.8)	(-35.4)	(10.4)	(19.6)	(15.0)

주 : 99년은 당 연구원 전망치임

□ 미국의 수퍼 301조 부활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수퍼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미 무역 흑자의 감소 내지 적자 반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배경) 미국은 26일 아시아 외환 위기 여파에 따른 무역 적자 급증, 일본 및 유

럽연합 등과의 통상 마찰 등으로 통상법 수퍼 301조를 부활시켰음

· 아시아 외환 위기에 따른 수출 부진과 수입 급증의 영향으로 98년 중 미국의 무역 적자가 97년의 1,1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1,640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내에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또 일본의 對美 철강 수출 급증, 아프리카産 바나나 수입 문제를 둘러싼 EU와의 마찰, 미국산 쇠고기의 對韓 수출 급감 등도 수퍼 301조 부활에 직간접 영향

- (내용) 불공정 교역 상대국에 대해 포괄적인 보복이 가능하도록 규정

· 수퍼 301조는 불공정 교역에 해당하는 품목 이외에도 해당 국가의 불특정 상품에 대해 포괄적인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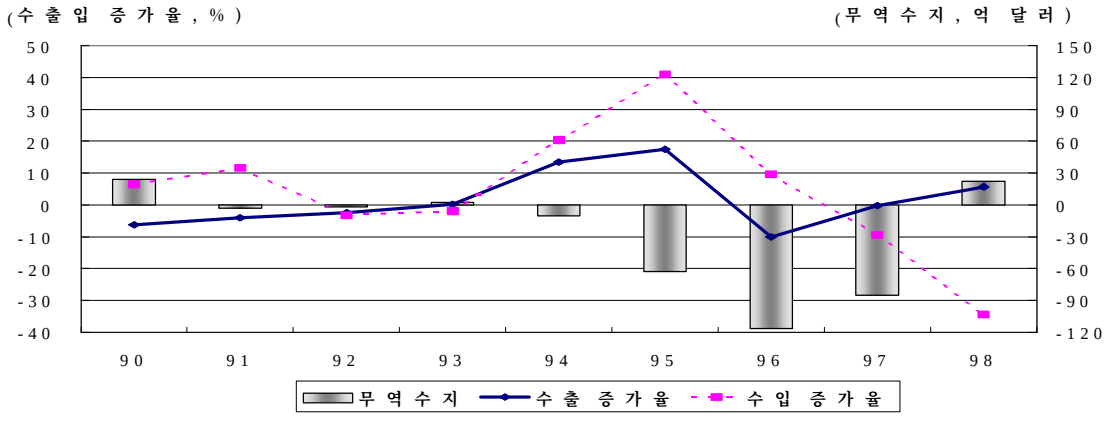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對美 철강 제품 수출이 덤핑이라고 판단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 반도체 등의 여타 품목에 보복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전망)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수퍼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수퍼 301조는 극단적인 통상 마찰이 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크지 않은 한국에 대해 수퍼 301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미국이 주로 일본, EU, 중국 등과 심각한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점과 최근 한국의 시장 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도 한국이 수퍼 301조의 발동 대상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대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영향) 한국에 대한 수퍼 301조의 발동이 없더라도 대미 무역 흑자의 감소 또는 적자 반전이 우려됨**
  - 현재 일본과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도 함께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국내 시장 개방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측 요구의 수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모처럼 흑자로 전환된 대미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음

□ 금융시장

원/달러 환율은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였지만, 정부 간접 개입으로 인해 소폭 하락. 금리는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로 반전. 주가는 매수세 유입,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 국내 실물경제 지표 회복세, 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상승세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로 소폭 하락**
  -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완화되었다는 점 등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 특히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및 기업의 월말 네고 물량 유입에 따라 시장에서의 공급 우위가 지속
  - 그러나 국책은행 등을 통한 당국의 간접 개입으로 하락폭은 제한되어 1,175원 내외에서 소폭의 등락의 거듭함. 2월 1일 현재 1,174.5원 기록

- **(자금시장) 금리 소폭 하락**
  - 정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관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나타나 하락세로 반전됨
  - 단기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벌어진 것도 장기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2월 1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8.13%를 기록

- **(주식시장) 주가 상승세 지속**
  - 단기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의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세로 반전
  - 특히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 정부 당국의 금리 인하설과 그에 따른 금리 하락 조짐, 산업생산 및 수출 증가세 지속, 무역 확대형 무역수지 흑자 시현 등 주변 여건이 호재로 작용. 2월 1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581.67 포인트를 기록

(채 창 균 *ckche@hri.co.kr* ☎*724-4031)*